

에너지 단신

1~9월 백색가전 수출동향 및 향후전망

전년동기대비 6.1% 증가, 연간 수출 31억불 달성 기대

1~9월까지 전기냉장고, 에어컨 등 백색가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한 25.8억불을 기록하여, 연초전망 3.2%를 크게 상회했다.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및 인터넷 냉장고 등 신기술제품의 수출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한 6.7억불 달성했고, 세탁기는 드럼세탁기 및 와권식 세탁기의 시장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한 3.3억불 달성했다.

또한 에어컨은 절전형 에어컨, 대체 냉매·음이온 발생 에어컨 및 시스템 에어컨 등의 수요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10.3억불 달성했으며, 전자레인지의 라이트 레인지, 복합기능 레인지(OTR) 및 인터넷 레인지의 완만한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5.4억불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백색가전 수출은 디지털화, 대형화, 다기능화 및 수출단가 인상에 힘입어 31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 멕시코, 유럽 등에 양문형 냉장고 및 인터넷 냉장고 수출 확대로 8.3억불 수출 전망을

일본, 필란드, 멕시코 등에 드럼세탁기 및 와권식 세탁기 수출 본격화로 4.1억불 달성 전망됐으며 미국, 멕시코

및 중동 등에 절전형 에어컨 및 오염공기 정화 에어컨 수출 개시로 11.3억불, 그리고 북미, 유럽 및 중남미 등에 라이트 레인지 및 인터넷 레인지 수출 본격화로 7.4억불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력시장 개설이후 시장참여 활발

시장참여 발전설비도 5천만KW 초과

전력산업구조개편 초기단계인 현행 발전경쟁시장에서도 발전소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등 시장참여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천만KW를 넘어선 5,083만KW에 이르렀다.

이는 2001년 4월 시장개설 당시에 비해 13.4%, 2001년말에 비해서는 6.2% 증가.

- 설비용량 : ('01.4) 4,493 → ('01.12) 4,796 → ('02.9) 5,093만KW

국내 총 계통설비 5,380만KW의 94.7%에 해당

-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하도록 규정

- 다만, 전력시장 개설 이전에 한전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PPA사업자는 종전계약대로 PPA를 유지할 수 있고,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시장참여설비중 62.2%인 3,166만KW가 기저발전설비(원자력, 석탄)이고 나머지는 일반발전설비이다.

- 원자력 : 1,572만KW, 석탄(국내탄

포함) . 1,594만KW

한편, 전력시장 개설이후 6개 발전회사 외에 총 15개 민자발전사업자가 신규로 시장에 참여(1,501.44MW)하여 거래하고 있다.

전력시장 신규 참여현황

- 집단에너지사업자 : 4개사 (229.4MW)

- 소수력발전사업자 : 6개사 (12.48MW)

- 자가용설비설치자 : 2개사 (1,013.50MW)

- 발전사업자 : 3개사(246.06MW) 향후 PPA사업자의 시장참여, 대체에너지개발 촉진 등을 통하여 시장참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 안전화(安全靴)에 새 KS 규격 제정

인체공학적으로 보다 전문화된 기능부여

앞으로, 산업용 안전화도 산업현장의 작업특성에 맞게 인체공학적으로 요소를 가미한 제품의 개발·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KS규격이 새로이 제정될 예정이다.

19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근로자가 착용하는 산업용 안전화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착용 근로자의 발이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KS 규격을 새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의 KS규격에는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화, 보호화, 작업화 등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안전화의 모양도 일반구두형과 반무릎부츠형의 두 종류일 뿐이고 안전만을 강조하다 보니 재질도 딱딱하여 근로자가 착용하는 동안 발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KS규격은 작업실정에 맞게 안전화의 형태를 일반구두형, 발목부츠형, 반무릎부츠형, 무릎부츠형, 허벅지부츠형으로 세분화하고 작업자의 취향에 따라 안전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도 포함하여 규정하기로 했다.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국내·외 광섬유에 관한 국제표준화 영향력 제고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제정기관인 IEC가 2002. 10.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IEC의 장기전략 소개에 이어 IEC 활동에 대한 효과적 참여방법 및 업무전산화 대응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광섬유 표준화 동향 등 전문분야 강좌를 IEC 부회장 등 4명이 발표했다.

본 워크숍을 통하여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의 최신 동향을 국내에 전파하는 한편 초고속 정보화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광섬유에 대한 국제표준

총합수치 및 화학약품 도·소매 전문회사

진원상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20-1
 대표전화 : (02)661-4947
 FAX : (02)666-6819 H·P : 017-249-6613
 E-mail : jk1998@lycos.co.kr

즈디어 찾았다!!

우리 현장에 딱 맞는 수처리 약품 공급업체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신속 납품 해 드립니다.
 이제 수처리 약품 일체는 진원상사와 상의 하십시오.

♣취급품목 -

- ▶정관제, 방청제, 보관제, 세관제, 녹물방지제, 스케일제거제
- ▶방각탕 살균제
- ▶미생물제제, 염소소독제



화에 우리나라의 영향력 제고를 도모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 및 전자분야 국제표준제정기관인 IEC (Interan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우리나라 대표 회원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전기전자산업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2002. 10.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IEC와 공동으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금번 워크샵에서는 IEC 기본계획 및 전망, 국제표준제정에 대한 효과적 참여방법 및 인터넷을 통한 제정절차 등 일반적 사항과 광섬유 표준화 동향 등 전문분야 강좌를 IEC 부회장인 Clif Johnston 등 4명이 발표했다

2010년까지 전기화재 비율을 15%대로 획기적으로 감축

제5회 전기안전촉진대회서 전기안전문화를 선진국수준으로 정착 결의

산자부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辛國煥 산자부 장관, 朴尙奎 국회 산자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전기안전관련 업계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기안전촉진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金永大)가 주관한 동 행사는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유공자 포상 및 전기안전결의문 채택을 통해 책임의식 제고 및 범국민 전기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9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재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국가들 중 하나로서 지난해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458명으로 전체 재해중 19.3%, 재산손실은 전체 재해중 40%인 679억원에 달한다.

후장관은 치사를 통해 수상자 및 전기사고 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기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우리나라 전기화재가 2001년말 기준 총 화재중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미국의 2.4배, 일본의 2.8배나 되는 등 전기안전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2010년까지 전기화재 점유율을 선진국수준인 15%대로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기준 단계적 강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단계로 강화하고, 관리대상 골프장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0.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중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임대 및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하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전처리시설 및 X-Ray시설은 현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였다.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예방 등 4대강수질개선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BOD, COD, T-N, T-P)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고 2008년부터는 대장균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되, 이해 당사자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2단계(2008년, 2013년 기준)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하였다.

골프장에서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규모를 현 골프장면적 30만㎡이상에서 모든 골프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군부대 골프장 등 비영리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성명 및 주소를 밝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기화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법안 결국 국회통과 무산

대체토론 없이 유보키로해 심사소위 법안상정도 자연히 무산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의 올해 내 국회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법안 심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측은 협의 끝에 대체토론 전에 가스관련 법안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 이전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가스관련 3법이 심사소위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듯이 이날 심사에서는 대체토론도 없이 법안을 유보키로 함에 따라 대체토론의 다음단계인 산자위 심사소위의 법안상정도 자연히 무산됐다.

따라서, 관련법안이 심사소위로 넘어갈 경우 28일 총파업을 결의했던 한

국가공사 노조도 총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산자위 심사소위 의원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법안 심사 전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진전시켜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공공부문에 의한 연대파업의 열쇠가 법안 통과여부에 있는 만큼, 문제점도 많고 지난 2월의 노정합의를 위배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는 이번 법안의 통과시도는 또 다른 사회적 분란만 야기할 뿐 통과 의미도 아무런 실익도 없다며 완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강인섭의원도 가스도입과 수송에 따른 계약승계시 막대한 비용처리 및 디폴트문제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내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예산 5350억원으로 확정될 듯

당초 6,000억원보다 삭감, 2002년보다는 2.4%증액

내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예산이 5350억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21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계수조정소위에 제출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5350억원으로 당초 요구액 6000억원보다 650억원이 삭감됐지만 2002년 예산(5222억원)보다는 2.4% 늘어난 규모이다.

조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예산을 사업부문별로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2050억원으로 2002년 예산(1989억원)보다 3.1%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소형열병합발전(CES)사업에 123억원이 배정돼 2002년 예산 대비 두배 규모로 증액된다. 지역냉난방사업도 1333억원이 배정, 2002년 예산(1150억원) 대비 16% 늘어난다. 다만 산업단지 열병합사업에는 2002년 예산 775억원에서 181억원이나 줄어든 594억원이 배정된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은 3050억원으로 조정, 1.7%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ESCO사업은 2002년 예산(990억원)보다 110억원이 늘어난 11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은 당초 요구액 300억원에서 삭감된 250억원으로 조정됐지만 2002년 예산(234억원)대비 68% 늘어난 금액이다.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초일류냉동공조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한인 기술과 가치의 추구를
40여년 외길을 걸어온 병양냉방
풍요한 재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헌신기업
제2, 제3의 도약으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http://www.bac.co.kr>

흡수식 냉수기 **왕복동식 냉동기**

스크류 냉동기 **터보 냉동기**

빙축열 코일 **Baltimore 클링타워**

공기조화기 **시카고블로워**

팬코일 유니트 **향온향습기**

패키지에어컨

병양냉방의 만능은 당신의 만족

병양냉방공업주식회사

▶ 고객상담실 : (02)401-4321, 555-0101(교:761-763)
♣ 클로버서비스 : 080-022-8815-6